

쉼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1.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신6:1-9)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Deu 6:1 [율법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도록 내게 부탁하신 그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법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들은 배워야 하고 그리고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그 법은 죽은 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남은광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배우든지 자세히 보고, 폐해진 법이면 그 의미를 알고 어찌해서 폐했는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고, 폐하지 않고 영원히 종속된 법이면 배워서 그것이 우리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현대문명이 대체적으로 시작과 출발은 미국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문명과 문화의 어떤 포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뭘 담아서 보내려고 했다면 이 성경을 담아서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불쑥 내밀면 안 받아 들이니까 문화라는 좋은 보자기에 그 포장을 해서 보내신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명과 문화 그 포장은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안에 있는 성경은 잘 안 받아들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뭐 -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한이 없고요 어째든 우리는 성경을 좀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데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정쩡하게 믿는 것은 마치 미신과 같은 겁니다.

구약성경의 율법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가 참 자유 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한 점 먹는다고 그 지옥 갈 염려 없고, 뭐 개고기 먹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땅에서 행하므로 어떻게 되느냐? 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6장 2절 보세요.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Deu 6:2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손자들이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에도 안 걸리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주시는 율법이나 신명기에서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은 뭘 “먹으라, 씹으라, 옷을 물로 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즉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이 땅에서 네 날을 장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가지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인도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레위기의 법이나 신명기의 법은 땅에서 삶을 얻고 복을 얻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복 있게 잘 활용하면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요.

율법은 아주 유익한 것이고 그 증거가 '여호와와 증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물론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록 잘못된 교리와 율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신앙적으로는 이단에 불과한 자들이므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면서도 땅에서는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경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을 놓쳤다는 거지요.

특히 음식을 구별하는 안식교인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안식교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교제를 해 보면 그들이 정말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 듣고 있잖아요.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율법을 복 있게 사용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율법의 유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얇은 상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Deu 6: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삶을 얻고, 복을 얻고, 날이 장구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수요가 번성하게 되고..... 거의 다 땅에서 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땅에서 잘되는 법은 거의 구약에 있고, 영원히 잘되는 법은 신학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신약성경에서는 땅에서 잘되는 이야기를 말씀한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기껏 해야 에베소서에서 보면(엡6:1-3)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건 구약에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들은 구약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길은 물론 신약성경 도처에 많이 기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6장 4절에 이른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쉼마 이스라엘!'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Deu 6:4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ㄱ)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여호와는 한분뿐이십니다.' (ㄱ.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여호와뿐이십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원문에서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증거' '증언'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말씀을 언제나 증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여호와만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신교(一神敎)'와 '유일신교(唯一神敎)'는 다릅니다.

일신교(一神敎)는 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섬기자. 그게 일신교예요. 그러나 유일신교(唯一神敎)는 다른 신들은 아예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편협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미국 사람보고 편협하다 하면 그것 최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단들에게 이단이라고도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협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구원파도 이단이 아니고, 안식교도 이단이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잘 지내요.

어떤 데에는 예배당 건물을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날, 토요일에 쓰니까 일반 기독교가 가서 또 주일날 빌려 쓰고, 빌려주고 그립니다. 그 정도로 좀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용도 아니고 그냥 타협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오류를 그렇게 수용하다가 나중에는 오류에게 동화되고 오류에게 아주 극복 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Deu 6:5 그러므로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요? 유일하시니까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바치고, 성품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다 바치고, 힘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분을 위해서 다 바쳐야지 뭐 신을 두 개, 세 개 정해가지고 3분지 1은 이 신에게 바치고, 3분지 1은 저 신에게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성품과 정성과 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에게만 바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런 말씀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중 쉬었! 차렷! 나를 사랑하라!’ 그게 그리 됩니까? 사랑하라고 해 가지고... 사랑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염치가 많으셔서 그런 것을 잘 못하시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도 했고, 지난주에는 쪽 5장에서 읽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뭐 만들지 말라! 그 뭐 뭐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그저 쏟아 부어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이고 정당한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성경을 보면 이정도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셨는데도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진실한 소원이 어떤 것이었나? 이 정도는 읽어야지요.

제가 볼 때 모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뭐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뭐 말고, 말고 말고가 아니라, 뭐 하란 말이냐 할 때, 하나님이 오직 한분 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알아들었고, 기록한 건데, 천번 만번 옳은 말입니다.

또 이 모세의 이런 해석이 옳다는 것을 인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서에 가서 마태복음 22장에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아닙니까?

이걸 묶으면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둘째를 말한다고 하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거기다가 또 제가 깨달은 것을 하나 더한다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사랑하라. 이게 에덴동산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무슨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막 가서 정복하고 파괴하고 막 이게 개발인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아주 야만인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강이든지 산이든지 어지간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6절입니다.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Deu 6:6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Deu 6:7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Deu 6:8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항상 기억하고 두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으십시오.

Deu 6:9 또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성문에도 모두 이 말씀을 써놓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동안 하다가 지금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2. 불순종에 대한 경고 (신6:10-19)

10절입니다.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Deu 6:10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땅으로 이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이 직접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고

Deu 6:11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산이 가득 찬 집들과 여러분이 파지 않고 남들이 이미 파놓은 우물들과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되거든,

Deu 6:12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잊지 말고’ 하나님이 또 잊혀 진 하나님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참 마음을 많이 써요.

잊지 못하게 하려고 기념일을 만들고 그리고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그리고 바깥문에 써 붙이라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잊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 그냥 예사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3절,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Deu 6:13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Deu 6:14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다니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신도 섬기지 마십시오.

Deu 6:15 여러분 가운데에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충성하지 않으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여러분을 세상에서 멸절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꽤 질투가 많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도 그 서양신학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아 하나님이 편협하게 무슨 질투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가페만 해야지..’

인간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질투도 못하게 하고 진노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도 못

내고 좀 입장이 곤란해요. 질투하면 또 하나님 편협하다고 하니까 질투도 못하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 때 대소요리문답집 보면, 네 번째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을 해 가지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잘 나가다가 네 번째 질문에 가서 그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렵죠. 고민하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 때 되어서 '그 - 아무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점심 먹고 논의 합시다.' 하고 점심을 먹는데 ... 점심 먹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님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에서 떠나 계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쪽 어떻게 뭐 그렇게 했는데 기도 마치고 '아멘' 하더니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 가지고 어설픈게 그저 몇 마디 써 났어요.

자세히 보면 그 어쭙잡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그게 다가 아니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써나가 보니까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한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인가? 맨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세주 하나님이고, 보혜사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숨어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여러 면면이 보이기 때문에 한 두 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여러 면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골고루.. 한쪽에 한쪽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도 하신다는 겁니다. 질투도..

자, 16절,

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Deu 6:16 여러분은 다시는 맛사에서 주님의 인내심을 시험한 것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Deu 6:17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계명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Deu 6:18 주께서 옳고 선하게 보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Deu 6:19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 땅에서 모든 원수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런 말이 있죠? 거기 6장 2절에 보면,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아들로 손자로 증손자로 이렇게 계속 대대로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창기에 이른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 360년 그리고 왕정시대 한 400년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도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가르치면 우리 믿음이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산 저산 기도원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료성경신학원, 무료라고 그러니까 또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3. 후일에 네 아들이 묻거든 (신6:20-25)

- 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나 하거든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Deu 6:20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여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증거와 계명과 규정들을 주셨습니까?' 하면

Deu 6:21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노예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Deu 6:22 여호와께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어 바로와 그의 온 집안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Deu 6:23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데려다가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Deu 6:24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Deu 6:25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율법을 억지로 바리새인처럼 외식으로 한 것은 전혀 의로움이 안 되는데, 율법을 진실로 행하면 그것이 왜 의로움이 되느냐?

여기보세요.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했어요. 맞습니까?

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복 받은 것에 네 배나 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다면 그걸 지킨 사람이 뭘 지키느냐? 또 이걸 지키면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안 지켰다가는 저주 받을 것을 믿으니까 최소한도 그 기본적인 그 두 가지 믿음만 있어도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안 지켰다는 것은 왜 안 지키느냐? 안 믿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복 받을 욕심. 믿었다면 복 받을 욕심에서라도 그 지켰을 것이고 저주 받을 것이 두려워서라도 그 지켰을 것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안 지켰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시원찮고 그래도 누가 우리를 안 믿어 주면 기분 나쁘죠?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완전히 진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우리를 안 믿어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가 무시해봐!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믿어 봐요.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는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성실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 다 못 지켜도 좋아. 못 지켜도 좋은데 그걸 믿고 지키려고 했다는 거고. 그걸 그 믿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면 전부 외식이고 전부 위선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하고 가서 논쟁하는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됐다! 됐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어.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철저하게 율법을 막 그렇게 과잉해석을 해 가지고 막 사람들 어깨에 잔뜩 지어 놓고는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무리 그 거룩한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헛방이라는 거고.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4. 적용 / 출애굽의 하나님 (신 6:20-25)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이 신자를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실 지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상상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른 종교보다도 교세가 커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종교성과 상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나 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 말씀, 규례, 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각각 구별되고 독립된 4종류의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증거가 있고, 또 다른 말씀이 있고, 또 다른 규례가 있고, 또 다른 법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4가지의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칠 때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해답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21-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지침으로서 주어지는 복이나 대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오라'는 말 한마디로 되어 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등장하심으로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농산물로 연장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며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 속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죽음 속에서 '어린양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보호받은 집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집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재앙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애굽에 대한 공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 10재앙입니다.

즉 어린양의 희생의 피가 개입된 집단, 즉 이스라엘은 산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피가 개입되지 않은 집단, 즉 애굽은 죽은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 자된 이스라엘이 예전의 이스라엘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버린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이스라엘은 애굽과 똑같이 농산물로 생명을 연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죽은 자라는 것에는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희생의 피로서 보호받고 살아난 산 자된 자들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점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은 어린양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희생의 피가 반복되어짐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도 희생의 피안에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어린양의 희생의 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 자체와의 동행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결국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희생의 피가 반복되지 않는 것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도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의 피를 반복할 때 그 피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는 어린양의 피의 흔적은 관심도 없이 다만 십자가만 내걸고 하나님을 불러대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사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 이것이 곧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 와 같은 것이고 멸망당할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린양의 희생의 피로 주어진 참된 생명을 모르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해보고자 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자비의 정신을 보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자비의 정신을 모른다면 여호와의 원수된 자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아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죄인 된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희생하신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이 곧 말씀이고 규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물을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소말리아 난민을 위해서 식량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 한끼 굶는 운동을 벌이고, 굶주리는 북한을 위해서 쌀 보내기 운동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으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원 높은 도덕과 윤리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교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어린양의 희생의 피가 개입되어야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희생의 피의 흔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는 모든 관심이 희생의 피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 흔적보다는 자신의 종교사업을 확장하고 번성시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과로 그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홍해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홍해 사건은 어린양이 피가 개입된 이스라엘은 산 자요, 피가 개입되지 않은 애굽은 죽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애굽 군사는 홍해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살아날 만한 어떤 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이스라엘에게 개입되어 있는 어린양의 희생의 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속에서 산 자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과 은혜와 자비로서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살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오늘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종교성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희생과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를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어린양의 희생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하나님은 선교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행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피의 흔적입니다.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피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흔적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실제 현재 신자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희생의 피가 개입된 집단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보여져야 할 삶의 모습은

첫째는, 애굽에서와 같이 농산물로 목숨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지되는 생명이 나타나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에게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 애굽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된 신자들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자기의 무가치함과 죄임 됨을 고백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고, 옛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끊이지 않음으로 출애굽이 계속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신자들도 계속되어지는 출애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 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로움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자의 의로움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자비를 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은 먹고사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먹고사는 것, 내 몸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피의 흔적을 지닌 채 날마다 출애굽하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